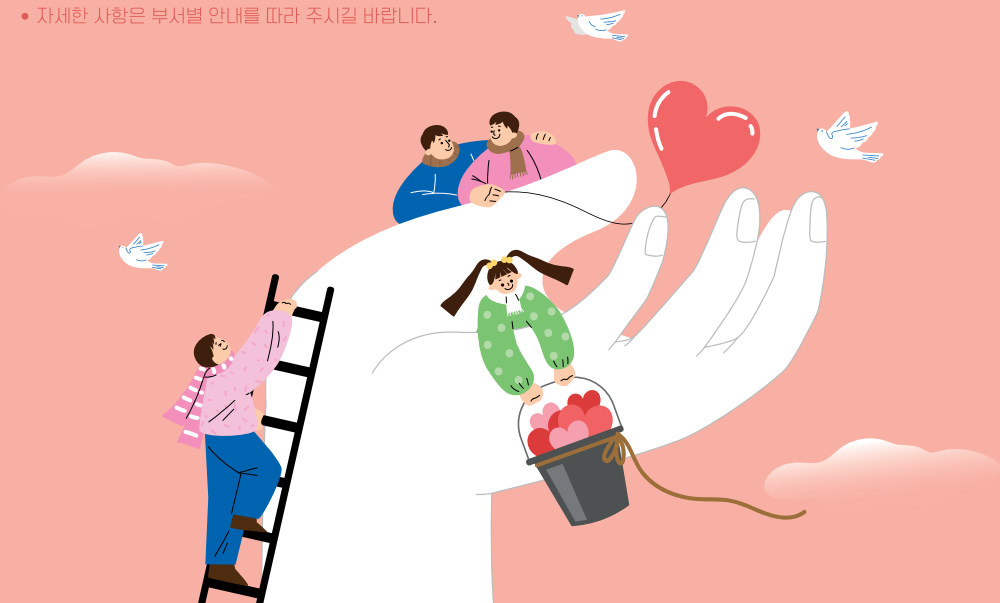




2023 교회학교 전반기 성경학교 및 수련회

부서		주제	일시	장소
영유아유치팀	유치1부	사도신경 -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롬 10:9~10)	2월 25일(토), 2월 26일(주일)	선교관 1층 유치부실
	유치2부		3월 4일(토), 3월 5일(주일)	
	유아유치3부		3월 11일(토), 3월 12일(주일)	
아동팀	유년부	슬기로운 믿음생활 (삼상 16:7)	2월 4일(토), 2월 5일(주일)	제2교육관 지하1층 제1예배실
	초등부	이새집 막내아들 (행 13:22)	2월 11일(토), 2월 12일(주일)	
	소년부	이새집 막내아들 (삼상 16:11~13)	2월 18일(토), 2월 19일(주일)	제2교육관 지하2층 제2예배실
	영어아동부	Putting on the full armor of God (엡 6:10~20)	2월 25일(토)	제2교육관 지하1층 제1예배실
청소년팀	중등부	원 앤 온리 (1 & Only) (벤전 2:9~10)	2월 24일(금) - 2월 25일(토)	소망수양관
	고등부		2월 17일(금) - 2월 18일(토)	
대학부		Re:member (렘 2:1~3)	2월 9일(목) - 2월 11일(토)	
청년부		몰랐어? 속죄와 윤리는 하나야! (레 5장, 시 15편)	3월 3일(금) - 3월 4일(토)	
청년플러스		잠언사경화: 인생경영 (잠 1~31장)	2월 28일(화) - 3월 1일(수)	
소망부		소망의 닻 (히 6:19)	2월 17일(금) - 2월 18일(토)	

•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안내를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February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2
깊어지는 영성	경외에 관하여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블린 언더힐	6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2월 본문	마가복음·룻기·에스겔	16
	1주(2/6) 2주(2/13) 3주(2/20) 4주(2/27)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예배를 회복하는 삶 최장수·허윤정	38
소망사랑방	하나되기 위한 연습 길연준	72
이스라엘과 코메르 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홍성민	104
공간공감	남장로교 광주 선교사 묘역 홍성찬	132
이달의 기도	삶의 자리마다	148

COMMUNICATION

문화읽기	<페르시아어 수업>을 통해 본 역경 극복의 지혜 황영미	150
소망마당	나에게 드림부란	154
예배자의 길	2월 우리의 고백 송미란·임한숙·김미혜	158
뿌리를 찾아서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박경수·이근복	162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	인간 감정의 표현 허윤정	166
돌봄의 창	혈루병 여인이 잡은 예수님 옷자락 백광흠	170
소망뉴스		17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새해 두 번째 달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였지만
돌아보니 변한 것은 하나 없고
게으름과 나태함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의 크고 작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외에 관하여

글 김경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도달해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시편 34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본 시편이 지어진 배경과 구체적인 정황을 잘 설명하는 표제입니다. 사울을 피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을 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사건과 연결됩니다. ‘아비멜렉’이란 호칭은 애굽 왕을 바로 혹은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같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피감낙정(飛坎落井)이란 말처럼,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손에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합니다. 결국 미친 척하는 수치스런 일까지 감행하면서 겨우 빠져 나오게 되죠. 그러니 벽찬 감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표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가드 왕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미친 척하는 기질을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34:4,6). 다윗이 아무리 기질을 발휘하여 지혜롭게 행동했어도 가드 왕 아기스가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꼼짝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따라 그를 이끌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구출하셨을까요? 다윗도 그 이유에 관심을 가지며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 다”(34:7).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분이 나를 구하여 주셨다!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조금은 교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즐거운 삶이며, 오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12).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비결을 말해 주죠.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34:13~14).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심오한 영적 단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평화를 찾아 따른 다윗이었기에, 이토록 당당히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34:10)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의 ‘피하는’ 자, 9절의 ‘경외하는’ 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찾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라쉬’ ^{דרש} darash는 ‘구하다’, ‘물어보다’, ‘상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상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평화를 찾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밝힐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거짓과 악한 행실을 버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글 이블린 언더힐



이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넘치고 흡족하게 베푸시며
우리 안에서 언제나 활동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내려 주시길 빕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영광 앞에 한없는 기쁨으로 나아갈 능력을 주시는 그분,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WORD

마가복음 · 룻기 ·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마가복음 3:31-35

수요일

제24주 314년 구약 제2주 21회 4월

말씀 속으로

21

그때에 예수와 동행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제수를 부르도니

Then Jesus' mother and brethren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22

무리가 제수를 둘러 앉았더니 여호와와 모세의 법전의 아내 나와 동행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ethren are outside looking for you."

2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아버지와 동행들이냐 하시고

"Who are my mother and my brethren?" he asked.

2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 동행들을 보라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ethren!"

36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가족의 식이가 새롭게 세워집니다(1차~3차)

매년실업률과 비교한 실업률,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률까지 될 것 없이 취업률에 있을 때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실업률까지 22.22% 이하에서 본 전국에 취업률이 있을 때 20.2%로 떨어진 실업률에 비해 취업률에 중점을 두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률 20.2%로 떨어진 실업률에 중점을 두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률 20.2%로 떨어진 실업률에 중점을 두고 가고 싶습니다.

2.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고의 몸을 제물로 갚아주셨습니다(33~35)

[illegible]

적용 | 앞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보세요.

1.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식구가 생각난다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사도합니다.

104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목상열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사본 1129-3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경건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으며 그의 의복들은 영원토록 찬란할 만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험과 칭찬 □

마가복음(4장) · 롯기(1~4장)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고 물으신 예수님이 답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3: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 이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문득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연상된다. 이전에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킨 자, 높은 자였으나 도리어 낮아진 자, 한편에는 주님이 보이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 말이다.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측량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은 ‘마음’을 짚으신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드시면서까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그중에 존재하는 좋은 땅을 밝히신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족과 그렇지 않은 외인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는가? 마가는 정확한 답을 주는 대신 ‘너희’와 ‘외인’,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어둠이 있으니 빛은 더욱 강렬하고 외인이 있으니 너희라 불리는 제자의 삶이 구별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어선다. 빛을 품은 등불이 숨겨질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가 결국엔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나라의 여명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도래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머금고 자라날 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듣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따라간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땅으로 귀경된다.

성경은 이 여정에 ‘임마누엘’ 신앙이 함께하기를 가르친다. 함께하는 주님을 보시고자 스스로 배에 오르신다. 그곳에서 휘몰아치는 바다와 바람을 한순간에 잠재우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유유히 바다를 건너 항해하신다.

사사 시대, 임마누엘 신앙을 꽃피우며 찬미를 올려 드린 인물이 소개된다. ‘나오미’ 곧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이다.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삶이 나오미 스스로 이름을 고쳐 부르도록 만든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1:20 중)

어둠의 터널이 길고도 길다. 숨어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 생각에 절규와 한탄이 그녀를 덮는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고 계셨다. 쓰러진 시어머니를 일으

키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한 롯의 고백에서, 두 과부를 넉넉히 품으며 여호와와 날개 역할을 자처한 보아스의 성품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당고 당아 어느새 흉년이 든 유다 베들레헴 땅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새의 아버지 오벧이다.

위대한 조상이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품에 받아 든 나오미에게 웃음꽃이 활짝 핀다. 갓난아이와 늙은 과부 사이에 흐르는 사랑을 보자 마을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하며 축하와 축복을 건넨다. 베들레헴 땅에 구원의 소식이 임한다.

고통과 죽음 끝에 찾아온 희락과 찬미.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서로의 아픔을 헤아린 하나님의 가족이 동행했다. 나오미가 롯을, 롯이 나오미를, 두 과부에게 자신을 내어 준 보아스의 사랑이 그러하다. ‘임마누엘’의 신앙과 함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4일 주간		
1(수)	마가복음 3:31~35	예수님이 세우시는 가족
2(목)	4:1~9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3(금)	4:10~20	씨 비유에 관한 풀이
4(토)	에스겔 36:1~15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1
6~11일 주간		
6(월)	에스겔 36:16~38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2
7(화)	마가복음 4:21~25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
8(수)	4:26~34	자라나는 씨 비유
9(목)	4:35~41	겨자씨 비유
10(금)	5:1~10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른 예수님과 제자들
11(토)	에스겔 37:1~14	마른 뼈 환상
13~18일 주간		
13(월)	룻기 1:1~5	흉년을 피해 이주한 엘리멜렉 가족
14(화)	1:6~14	과부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
15(수)	1:15~22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
16(목)	2:1~7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롯
17(금)	2:8~16	롯을 환대하는 보아스의 사랑
18(토)	2:17~23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롯과 나오미
20~25일 주간		
20(월)	3:1~5	보아스와 롯의 만남을 계획하는 나오미
21(화)	3:6~13	보아스와 롯의 만남
22(수)	3:14~18	롯의 청을 받아든 보아스
23(목)	4:1~6	보아스와 친족의 만남
24(금)	4:7~12	보아스와 롯의 결혼
25(토)	4:13~22	오벧의 탄생
27~28일 주간		
27(월)	에스겔 37:15~28	이스라엘을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28(화)	마가복음 5:11~20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2

February 2023

SUN

MON

TUE

WED

1

5

6

7

8

12

13

14

15

권사회 월례회

19

20

21

22

재의 수요일(사순절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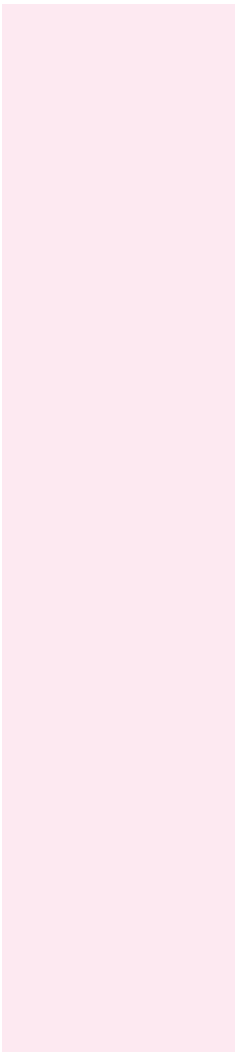
26

27

28

3	S	M	T	W	T	F	S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1

수요일

마가복음 3:31~35

오늘의 찬송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말씀 속으로

- 31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3:31~34 동생들
또는 형제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세워집니다(31~32).

예수님의 친족이 보인 민낯은, 서기관이라 하는 율법학자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3:21-22). 그리고 이어지는 본 단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은 바로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새로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보편적인 사고에서 여겨지는 가족 구성원을 차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32절) 어쩌면 이 말을 전하던 무리들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들보다,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찾고 있는 가족이 더 우선이라는 추측이 앞선 걸로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내린 판단을 들으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 예수님이 사고의 틀을 깨트리라고 명하십니다(33~35).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33절)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음성이 들리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주님이 주변을 둘러싸던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대답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34절) 혈육의 관계로 묶인 사람만이 어머니이요, 형제라는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시며 예수님이 창조해 가시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됩니다(35절). 한편으론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듣고 바라보는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까닭에 불신과 미움, 투쟁의 세력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세력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를 번갈아 비추며 두 세계의 공존을 알리는가 하면, 기존의 믿음과 신념,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식구가 생각난다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2:1~3 ¹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²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³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목요일

마가복음 4:1~9

오늘의 찬송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속으로

-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was so large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ut on the lake, while all the people were along the shore at the water's edge.

-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in his teaching said:

-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 4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
-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o that they did not bear grain.

-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
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grew and produced
a crop, multiplying thirty, sixty, or even a hundred times.”

-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Then Jesus said,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1~3).

‘다시’,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동하셔서 가르침을 이어 가십니다(1절). 그때에 몰려든 ‘큰’ 무리, ‘온’ 무리에 관한 묘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의 확장을 암시합니다. 밭 디딜 틈 없이 모여든 무리에 주님은 바다 위 배에 오르셨고, 육지에 머문 무리들은 들려주실 말씀에 귀를 쫓긋 세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2절) 흥미롭게도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그분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관한 비밀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비유를 드신 모습에서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한편, 무리 중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들으라” 명령하시는 말씀 뒤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3절).

2. ‘무엇’ 그리고 ‘어떻게’ 들으냐가 중요합니다(4~9).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속에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에게 금방 먹히고, 돌밭에 뿌린 씨는 썩은 티우나 뿌리가 없어 매마르고 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방해하는 가시로 인하여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명령하시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는 자에게는 예측을 뛰어넘는 은혜의 차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에게는 삼십 배를 뛰어넘는 ‘백 배’의 보다 풍성한 열매가 허락됩니다. 이것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간곡히 부탁하시며 씨를 뿌리러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보시다.

1.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성령님이 나의 전인격을 바르게 조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주님은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강조하시면서도 그 삶을 초대하고 이끄시는 분이 자신임을 알려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나는 갖가지 밭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4:30~34 ³⁰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³¹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³²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³³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³⁴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

마가복음 4:10~20

금요일

오늘의 찬송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 속으로

-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When he was alone,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so that, '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The farmer sows the word.

15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Some people are like seed along the path, where the word is sown. As soon as they hear it,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m.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Others, like seed sown on rocky places, hear the word and at once receive it with joy.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4:12 사 6:9,10

-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Still others, like seed sown among thorns, hear the word;

-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the deceitfulness of wealth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come in and choke the word, making it unfruitful,

-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 - thirty, sixty or even a hundred times what was sow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주님의 제자는 듣고 묻습니다(10~12).

본 단락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작이 홀로 계신 주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합니다(10절). 다시 말해 큰 무리 중에는 듣고도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를 묻고자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라 칭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외인’을 직접 구분하시기도 합니다(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라 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열려지고 깨달아지지만, ‘외인’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부류가 결정적으로 구분됩니다(12절). 물론 너희와 외인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만큼 외인의 존재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빛과 어둠의 영역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강렬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 안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분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 주님을 따르는 자는 평생에 보호를 받습니다(13~20).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시며 비유를 풀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는 마가가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담겨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야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듯이 믿음의 세대인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날까지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부분적일 뿐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탄이라 하는 악한 영과, 믿는 자를 둘러싼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언급됩니다(15~17절).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여호와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땅을 소유한 자의 인생입니다. 결국 믿음이 그를 살리며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비유를 시작하신 주님께 이어 의미를 묻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쭙고, 깨닫고, 확신을 얻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2. 언제든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붙들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해 주셔서 복된 인생의 소유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5~10 ⁵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⁶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⁷ 그 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⁸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⁹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¹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에스겔 36:1~15

토요일

오늘의 찬송 406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말씀 속으로

- 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Son of man, prophesy to the mountains of Israel and say, ‘O mountains of Israel, hear the word of the LORD.

-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e enemy said of you, Aha! The ancient heights have become our possession,’

- 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망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Therefore prophesy and say,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Because they ravaged and hounded you from every side so that you became the possession of the rest of the nations and the object of people’s malicious talk and slander,

-
- 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뗏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therefore, O mountains of Israel, hear the word of the
Sovereign LORD :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o the
mountains and hills, to the ravines and valleys, to the desolate
ruins and the deserted towns that have been plundered and
ridiculed by the rest of the nations around you -

-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
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
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n my burning zeal I
have spoken against the rest of the nations, and against all
Edom, for with glee and with malice in their hearts they made
my land their own possession so that they might plunder its
pastureland.'

- 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뗏
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
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Therefore prophesy concerning the land of Israel and say to
the mountains and hills, to the ravines and valleys: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speak in my jealous wrath
because you have suffered the scorn of the nations.

- 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망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swear with uplifted hand that the nations around you will also suffer scorn,

-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But you, O mountains of Israel, will produce branches and fruit for my people Israel, for they will soon come home,

- 9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I am concerned for you and will look on you with favor; you will be plowed and sown,

- 10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이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and I will multiply the number of people upon you, even the whole house of Israel. The towns will be inhabited and the ruins rebuilt,

-
-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I will increase the number of men and animals upon you, and they will be fruitful and become numerous. I will settle people on you as in the past and will make you prosper more than befor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 12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I will cause people, my people Israel, to walk upon you. They will possess you, and you will be their inheritance; you will never again deprive them of their children.

- 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Because people say to you, You devour men and deprive your nation of its children,

- 14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refore you will no longer devour men or make your nation childless, declares the Sovereign LORD.

4
—
토

15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
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No longer will I make you hear the taunts of the nations, and
no longer will you suffer the scorn of the peoples or cause
your nation to fall,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도 소유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1~7).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고되는 가운데 에돔을 향한 경고가 기록되었습니다(35장). 한때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모욕한 에돔 족속의 멸망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비춘 셈입니다. 이 흐름이 이곳에도 이어지며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이스라엘 산’이 사용됩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1절)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의 귀환뿐만 아니라 그들이 밭 딛고 살아갈 삶의 모든 터전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맞닥트린 현실은 여전히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습을 강조하는 듯 ‘비방거리’, ‘노략거리’, ‘조롱거리’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며 이방인보다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빈손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드러납니다(3~4절). 그러나 이내 그 땅을 향하여 ‘내 땅’ 곧 ‘내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여호와와 음성(5절)이 들어서자, 에돔을 비롯한 이방 족속이 열방의 수치가 되는 기이한 역사가 예언됩니다(5~7절).

2.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8~15).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방의 최후가 멸망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내 것’이라 여기신 이스라엘의 미래는 생명의 열매로 가득합니다(8절). 한편, 땅이 소산을 맺는 일에는 가꾸고 돌보는 사람도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 일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초대되며 점차 변영하는 민족의 역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9~10절). 비단 성읍에 거주할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짐승도 날마다 번성하니 죽음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느새 온갖 생명들로 부요해집니다(11절). 여기에 ‘다시는’, ‘다시는’ 이방 민족의 수치와 비방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루어지자 땅과 백성, 짐승 모두가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12~15절). 실로 진노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시어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여호와와 자비가 없이 우리 모두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9절).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내 백성’이라 선포하시며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음성을 나와 우리 가정의 것으로 믿고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2. 여호와와 돌이키시는 은혜 없이 죄인인 인간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8:1~5 ¹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²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못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³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⁴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⁵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예배를 회복하는 삶

글 최장수·허윤정 (일본 선교사)



저희는 일본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츠야마시埼玉県東松山市에 있는 히가시마츠야마교회東松山教会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 최장수, 허윤정입니다. 2012년 4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이래 소망교회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키타 슈난교회에서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2019년 10월, 지금의 교회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하여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새 임지에서 적응과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방역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첫 번째 긴급 사태 선언이 발동하였을 때, 한 달 정도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긴급 사태 선언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정 예배와 회당 예배를 병행하여 회당에서 대면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교회 집회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모이는 주일 예배가 중심이며, 한 달에 두 번 수요 성경 공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구약 성경 통독을 목표로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일어판을 교재로 사용하여서 잘 마쳤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9시 30분에서 10시에 모이며, 교사들과 함께 초등생·유치원생 각 1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두 어린이는 교인의 자녀들입니다. 지난해부터 매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는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과정에 영어 수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마침 교인 중에 일본인과 결혼한 미국인 자매님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 중에는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주일 예배에 10명 정도 모였으나,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되어서 매주 2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고령자의 교인 중에서 네 분이 소천하시고, 한 분이 고령자 시설에 입실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연말부터 두 가족이 새로이 출석하고 있어서 소천하신 분들의 빈자리를 채워 주고 계십니다.

2023 새해를 준비하며 일본의 침체된 선교 현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시작하였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모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 선교의 열정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며 복음의 증거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 불타오르고, 일본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초 기간 중에 일본인들은 유명한 진자를 찾아가서 그곳에 놓아둔 우상 신들에게 참배합니다. 이것을 하츠모모데(初詣)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시내 슈퍼에 걸어가는 중에 진자를 지나게 되었는데, 주차장 앞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와 경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참배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경내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로 북적거리며, 부적이나 음식을 파는 간이 점포가 주옥 늘어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원단 예배로 드리며 참되신 하나님께 일 년의 축복을 기원하였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훨씬 많은 일본인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 진자에서 거뒀 신들에게 복을 빌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통 문화의 이름으로 거짓 신 앞에 복을 비는 이들이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힘껏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께도 일본을 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2/5~11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 35:28)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에스겔 36:16~38

오늘의 찬송 54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말씀 속으로

16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Agai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Son of man, when the people of Israel were living in their own land, they defiled it by their conduct and their actions. Their conduct was like a woman's monthly uncleanness in my sight.

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So I poured out my wrath on them because they had shed blood in the land and because they had defiled it with their idols.

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쳐더니

I dispersed them among the nations, and they were scattered through the countries; I judged them according to their conduct and their actions.

20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And wherever they went among the nations they profaned my holy name, for it was said of them, "These are the LORD's people, and yet they had to leave his land."

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I had concern for my holy name, which the house of Israel profaned among the nations where they had gone.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Therefore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t is not for your sake, O house of Israel, that I am going to do these things, but for the sake of my holy name, which you have profaned among the nations where you have gone."

- 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I will show the holiness of my great name, which has been profaned among the nations, the name you have profaned among them, Then the nations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declares the Sovereign LORD, when I show myself holy through you before their eyes,

- 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For I will take you out of the nations; I will gather you from all the countries and bring you back into your own land,

-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and you will be clean; I will cleanse you from all your impurities and from all your idols,

-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And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move you to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s.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
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You will live in the land I gave your forefathers; you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I will save you from all your uncleanness. I will call for the
grain and make it plentiful and will not bring famine upon
you.

30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I will increase the fruit of the trees and the crops of the field,
so that you will no longer suffer disgrace among the nations
because of famine.

36:26 굳은
돌

36:26 부드러운
고기

- 31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밋게 보리라

Then you will remember your evil ways and wicked deeds, and you will loathe yourselves for your sins and detestable practices.

- 3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I want you to know that I am not doing this for your sak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Be ashamed and disgraced for your conduct, O house of Israel!

- 3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On the day I cleanse you from all your sins, I will resettle your towns, and the ruins will be rebuilt.

- 34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The desolate land will be cultivated instead of lying desolate in the sight of all who pass through it.

-
- 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They will say, This land that was laid waste has become like the garden of Eden; the cities that were lying in ruins, desolate and destroyed, are now fortified and inhabited.

- 36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Then the nations around you that remain will know that I the LORD have rebuilt what was destroyed and have replanted what was desolate,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 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Once again I will yield to the plea of the house of Israel and do this for them: I will make their people as numerous as sheep,

- 38 제사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as numerous as the flocks for offerings at Jerusalem during her appointed feasts, So will the ruined cities be filled with flocks of people.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16~31).

이스라엘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미래가 예고되었습니다(36:1-15). 본 단락은 이 약속이 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히며, ‘내 것’이라 부르시는 음성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전합니다(21절). 이를 위하여 먼저는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와 형제간에 일어난 살인죄가 기록 되는데, 부지중에 범한 백성의 죄마저도 살살이 살피신 여호와가 이제는 자비로운 눈으로 살 피시며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16-18절).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의 피해자인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 반한 가해자인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22-28절).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 되는 날에 이전에 행한 악한 길이 떠올라 스스로 괴로워하는 백성이 생겨납니다(31절).

2. 여호와께 소망 두는 자가 승리합니다(32~38).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32절) 호통처럼 다가오는 단호한 음성 뒤로는 눈부시게 변할 예루살렘 성읍이 묘사되면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의 차원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마다 안타까움을 자아낸 예루살렘 성읍이 최고의 동산인 에덴동산에 비유될 만큼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자 이방인조차 감탄하기 시작합니다(34-36절). 바로 이 일, 곧 이방 민족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는 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33절). 포로가 된 그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고 비아냥거리던 이방인을 도리어 낮추시고 낮아진 이스라엘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36:20).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자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37절). 그들의 외침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자 죄인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예비됩니다(38절, 겔 20:3).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번영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안에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예고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2. 우리의 기도를 들기로 결단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음에 담은 소원을 아뢰어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6:1~6 ¹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²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³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⁴ 주님, 네겔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⁵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⁶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
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
리니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 and even more.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주님이 역설의 신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21~23).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4:1~20).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듣고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맺혀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단락은 ‘등경 위에 둔 등불’ 비유를 소개하며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 나라를 예고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21절) 빛을 품고 그 빛을 비추는 본래의 목적을 따라 등불은 차마 숨겨질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밝히 드러납니다. 물론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계시되고자 숨어 있는 역설의 신비를 이야기하십니다(22절). 이처럼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등불을 보며 길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세밀하게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23절)

2.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습니다(24~25).

마가의 복음서 안에는 ‘무엇’과 더불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묘사됩니다. 그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이라 하는 율법학자들이 회자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도 끝내 부인하고 죽이려 드는 그들을 염두에 두시며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25절)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의 수고를 헤아리는 자는 헤아린 만큼 복을 받았으나 수고하는 자의 섬김을 마다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돌려받게 됩니다(24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공짜가 없는 인생임을 실감하게 하는 이때에 더 받는 자의 인생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점차 열려지고, 비밀의 열쇠를 푸는 영광스런 자리에도 오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숨기시며 사역하신 예수님을 목상하면서 나와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예수님은 작은 일도 귀히 여기시며 중심을 살피십니다. 말씀을 목상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임하여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6:1~5 ¹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²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³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⁴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⁵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마가복음 4:26~34

오늘의 찬송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 리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 - 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seed you plant in the ground,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perch in its shade."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With many similar parables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But when he was alone with his own disciples, he explained everyth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 나라가 곧(26~29)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등경 위에 놓인 등불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논하는데, 본 단락에 기록된 ‘자라나는 씨’ 비유 역시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초점을 조금 달리 하여, 즉 이전의 두 비유는 좋은 마음과 듣는 귀를 강조하였다면 이번에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씨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에 집중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는 듯 주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시는가 하면, 땅에 관하여 특별히 구분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부지런히 씨를 뿌릴 뿐이고 땅 안에 든 씨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28~29절). 순식간에 자라나는 씨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유독 ‘곧’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던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머지않은 주님의 재림 소식을 알리는 이 비유는 큰 위로가 되었을 법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앞에도 때에 이르러 곧 드러날 것입니다!

2.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뺏어”(30~34)

자라나는 씨 비유가 씨 자체의 생명력에 주목한다면, ‘겨자씨’ 비유는 씨의 크기를 주요하게 다룹니다. 씨의 크기와 이것이 가진 생명력이 비례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부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한편으론 세상에서 어떤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도구 삼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땅에 심긴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 큰 나무가 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뺏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32절) 로마의 세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박해가 불가피했던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겨자씨 비유는, 누구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지를 되물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로마 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인내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존재했을 듯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주님과 끝까지 연합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겨자씨에서 자라난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암시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고 있습니까?
2. 겨자씨의 생명력이나, 힘과 재물이냐를 선택하는 기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30~33 ³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³¹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³²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³³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9

마가복음 4:35~41

목요일

오늘의 찬송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속으로

- 35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
가자 하시니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
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
게 되었더라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nearly swamped.

- 38 예수께서는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
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
시나이까 하니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
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4:40 어찌 믿음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의 항해가 시작됩니다(35~37).

비유를 통한 가르침 끝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35절) 그러자 제자들이 함께하던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오르셨던 배에 함께 탑니다(36절). 그런데 느닷없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이리저리 떠밀리며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배 안에 바닷물이 가득 고이며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러갑니다(37절). 긴박한 분위기 속에 문득 요나가 떠오르며,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오른 배에서 광풍을 만난 사건이 연상됩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배에 오르시고 항해하셨다는 점에서 요나와는 결정적으로 다르셨습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이동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암시하는 듯 ‘날이 저물 때’의 시점을 알립니다(35절). 유대인의 사고에서 날이 저무는 그때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2. 주님께 연합된 자가 평안합니다(38~41).

한가득 물이 고인 배를 보며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잠을 청한 요나를 깨우듯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38절) 원망 섞인 제자들의 음성이 이해도 되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마가는 많은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곁에서 비유를 들으며 그 의미를 가르침받은 그들이지만, 어느 순간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후미’로 몰려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의 이유임을 알리는 듯 후미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시는 주님과 달리, 광풍에 요동치는 물결을 보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춥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와 연합되어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을 후미로 몬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신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40절) 때마침 잠잠해진 바람과 바다 사이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눈치입니다(4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시점에 제자들은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내 안에도 두려운 감정이 앞서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2.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가정,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는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1:1~4 ¹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²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³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⁴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마가복음 5:1~10

오늘의 찬송 405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말씀 속으로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evil spirit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땔 수 없게 되었으니

This man lived in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 more, not even with a chain.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지라

For he had often been chained hand and foot, but he tore the chains apart and broke the irons on his fee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he would cry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When he saw Jesus from a distance, he ran and fell on his knees in front of him.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He shouted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Swear to God that you won't torture me!"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For Jesus had said to him, "Come out of this man, you evil spirit!"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 he replied, "for we are many."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5:9 군대

헬라어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합니다(1~5).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한순간에 잠재우셨습니다(4:41). 과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한차례 드러난 후, 배가 이른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1절).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근접 지역인 이곳에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2절). 성경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세력 아래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자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그의 참혹한 삶을 비춥니다(3절). 한 사람의 인격을 묶으며 괴롭힌 악한 영의 세력은 또 어찌나 강했는지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보지만 능히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4절). 감히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은 자연스레 기피할 수밖에 없었고,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인지 그가 밤낮 무덤 사이와 산을 두루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5절).

2. 생명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6~10).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제자들과 달리 귀신 들린 자는 단번에 주님을 알아봅니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7절) 표면적으로 보면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칭송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 거라사인 지방의 우상들을 언급할 때 회자되던 표현입니다. 즉 이 자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을 우상 중에 한 우상, 신 중에 한 신에 빗대어 모독하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항한 셈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그에게 애써 이름을 물으시며 귀신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보여 주시고자 합니다(9절). 그때에 귀신이 자신을 두고 ‘군대’라고 밝히며 거라사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무시한 세력을 가늠하게 하지만, 주님이 지금 그곳을 찾으셨습니다(1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요나와 달리 주님은 어둠의 영에 짓눌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이 전하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2.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만남은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힘으로 죽이고 억압하는 세상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이 땅에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3:6~9 ⁶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⁷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⁸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⁹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1

에스겔 37:1~14

토요일

오늘의 찬송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말씀 속으로

-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and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bones that were very dry.

-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
-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o these bones: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I will attach tendons to you and make flesh come upon you and cover you with skin; I will put breath in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어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it,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 a vast army.

-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They say, 'Our bones are dried up and our hope is gone; we are cut off.'"

-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Therefore prophesy and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O my people, I am going to open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I will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Israel.

-
- 13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Then you, my people,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open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
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you will live, and I will settl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will know that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have done it, declares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주께서 아시나이다”(1~10)

이스라엘의 미래가 희망차고 밝은 건 사실이나 현실은 여전히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입니다(36장). 이렇듯 에스겔서는 번영하는 미래와 함께 앞드려 있는 한 선지자를 번갈아서 비추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장은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으로 문을 열며 36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1~2절). 이때에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묘사는 현실의 무게감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물음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3절)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지는 뼈를 보면서 에스겔은 차분히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서둘러 명령하셨고 이 뼈, 저 뼈가 순식간에 연결되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진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4~7절). 그리고는 이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일어나 서게 되는데, 그 모습이 군대와도 같다고 전해집니다(8~10절).

2. 하나님은 죽음도 능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11~14).

“주님이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고백했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가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벌였을지 묵상하게도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정작 예배드리지 못하는 땅에 갇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대언해도 동족인 형제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때로는 입술이 막히고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등 온갖 시련이 에스겔의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올린 고백은 자신과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의 고백 한편에 현실을 비판하며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 함께 기록합니다(11절).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불평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새 영을 부으시고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실로 그분의 사랑은 죽음도 끊어낼 수 없이 영원합니다(12~1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에스겔의 고백을 따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거듭된 고난 끝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따르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6:7~10 ⁷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⁸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⁹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¹⁰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하나되기 위한 연습

글 길연준 (권사)

지난 1월 15일로 44번째의 예배를 드린 ‘미소비전예배’는 2022년 3월 20일에 첫 예배를 올리며 시작되었다. 미소비전예배는 북한을 이탈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 및 대학생들과,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예배이다. 매주 10명 남짓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오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이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들은 윗 동네, 기존 성도들은 아랫 동네로 호칭하며 분리되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공존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러한 호칭들이 슬그머니 ‘형제,’ ‘자매,’ ‘청년’ 등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갈 길은 멀고 멀지만 미소비전예배는 하나가 되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한 것 같다.

그동안 진행해 온 예배 속에서 청년들과 작간접적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중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다. 우리는 처음 만남에서 호기심과 열정으로 많은 질문을 던진다. 청년들의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릴 수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을까?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옆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좌충우돌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줄 때, 이들은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는 남한 성도, 도움을 받는 북한 성도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그 결과 남한 성도가 도움, 가르침, 조언을 주는 일방적인 수직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위 아래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귀로 진심을 가지고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야 생사고비를 넘기고 남한에 온 그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다르다. 출신 지역과 성분, 교육 수준, 탈북 시기와 동기, 남한 입국 시기와 탈북 이후의 삶, 나이와 성별에 따라 편차가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같은 상자에 넣어 이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각기 다른 청년들이 각기 다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 어떤 고민과 걱정, 소망과 꿈이 있는지 충분히 듣고 다름을 이해하여 이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응답하며 도움을 쥐어 준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수평적 관계, 편견 없이 믿음으로 하나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예배를 운영하고 있는 소망의 기존 성도인 우리는 청년들을 이해하고 품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우리와 같이 신앙을 키워 가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마다 정말 고맙다.

“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

하나로 사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보낸 탈북 청년들과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복음 통일을 이루는 진정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1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2/12~18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시 47:4)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3

룻기 1:1~5

월요일

오늘의 찬송 415 십자가 그늘 아래

 말씀 속으로

-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The man's name was Elimelech, his wife's name Naomi, and the names of his two sons were Mahlon and Kilion. They were Ephrathites from Bethlehem, Judah. And they went to Moab and lived there.

-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Now Elimelech, Naomi's husband, died, and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
-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They married Moabite women, one named Orpah and the other Ruth. After they had lived there about ten years,

- 5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both Mahlon and Kilion also died, and Naomi was left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

1:2 말론과 기론

'말론'은 '병약한 자'라는 뜻이다. '기론'은 '사라지다'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4 오르바, 룯

'오르바'는 '원고함'이라는 뜻이며, '룰'은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멜렉 집안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1).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을 맺은 사사기 다음으로 윗기서는 이렇게 문을 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1절) 그리고는 마치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듯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슬픈 소식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 ‘빵의 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곳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는 기록은 물질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했던 이스라엘 상태를 보다 실감나게 만듭니다. 유다 출신의 사람이 이방 민족, 그것도 여호와와 총회에 출입이 불가능한 모압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자리를 잡은 까닭입니다. 이처럼 윗기서는 시작부터 역설적인 상황을 거침없이 묘사하는 한편,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이야기를 한 가문을 통하여 전해 주고자 합니다.

2.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엘리멜렉 집안과 함께하셨습니다(2~5).

윗기의 기자는 엘리멜렉 가족의 이동에 관하여 자세한 판단은 보류합니다. 다만 살고자 간 땅에서 가장 먼저 엘리멜렉이 목숨을 잃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었다는 비보는 이방 땅으로 넘어간 그들의 최후를 은연중에 강조합니다(3~4절). 한편으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함께했던 십 년의 세월은, 이방 문화에 동화될 대로 동화된 엘리멜렉 집안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모압 땅에 들어간 엘리멜렉 집안을 기이하게 구원해 내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과부가 된 늙은 나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등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고통 끝에 그녀의 삶은 ‘나오미’ 곧 ‘기쁨’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회복되어 가고, 다 쓰러진 ‘엘리멜렉’ 집안이 소생되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찬미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살고자 떠난 땅에서 도리어 죽음을 맞는 엘리멜렉 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를 풍자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윗기는 극적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께 귀 기울이며, 여호와와 눈으로 삶의 자리를 살피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4:11~14,22 ¹¹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¹²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¹³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물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¹⁴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²²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4

룻기 1:6~14

화요일

오늘의 찬송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말씀 속으로

- 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When she heard in Moab that the LORD had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by providing food for them, Naomi and her daughters-in-law prepared to return home from there.

- 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With her two daughters-in-law she left the place where she had been living and set out on the road that would take them back to the land of Judah.

- 8 나옴이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Then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back, each of you, to your mother's home. May the LORD show kindness to you, as you have shown to your dead and to me.

-
- 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May the LORD grant that each of you will find rest in the home of anot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wept aloud

-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and said to her, “We will go back with you to your people.”

-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But Naomi said, “Return home, my daughters. Why would you come with me? Am I going to have any more sons, who could become your husbands?

- 12 내 딸들이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단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Return home, my daughters; I am too old to have another husband. Even if I thought there was still hope for me - even if I had a husband tonight and then gave birth to sons -

1:12

수혼법을 염두에 두며 발언한 내용이다. 수혼법은 자식 없는 과부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남편의 상속자를 잇는 제도이다(신 25:5-10).

14

— 화

-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would you wait until they grew up? Would you remain unmarried for them? No, my daughters. It is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because the LORD's hand has gone out against me!"

-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뒤통은 그를 붙좃았더라

At this they wept again. Then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good-by, but Ruth clung to h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6~10).

과부가 된 나오미 편에서는 사별의 슬픔만이 전부는 아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당장 두 며느리와 생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자연스레 떠난온 베들레헬 땅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곳 모압에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는 신학적 고백이 자리하게도 됩니다(13절). 언뜻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녀는 묻고, 또 묻는 시간을 보냈을 듯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베들레헬이 회복되어 양식이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압 지방에서 나오기를 결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6-7절). 그때에 나오미가 오르바와 룯을 다독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8절) 비참한 삶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쓰디쓴 고백만 할 뿐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느새 두 이방 여인을 품는 사랑과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습시다.

2. 이방 여인의 눈이 소망을 향합니다(11~14).

두 며느리를 남겨 두고 나오미 홀로 돌아가고자 결심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고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이르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냉담하기만 합니다(10~13절). 어쩌면 나오미의 고백은 고통스런 현실에서 빚어진 열매이지만, 그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부재했다는 사실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판단한 만큼 나오미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둔 셈입니다. 결국 완강한 나오미의 뜻에 오르바는 수궁하여 모압에 남기로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룯은 마음을 끝내 저버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헬으로 돌아갑니다(14절). 대답하고도 용기 어린 이방 연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와 이방 민족 모두를 살리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고통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맺어 가는 나오미의 삶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없는지 돌아보고, 열매를 나누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나오미는 보지 못했지만 모압 여인 룯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하면서 그녀가 내린 결단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0:12~17 ¹²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¹³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¹⁴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¹⁵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햇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¹⁶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¹⁷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Look,” said Naomi, “your sister-in-law is going back to her people and her gods. Go back with her.”

-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But Ruth replied,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anything but death separates you and me.”

-
- 18 나오미가 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When Naomi realized that Ruth was determined to go with her, she stopped urging her.

-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When they arrived in Bethlehem, the whole town was stirred because of them, and the women exclaimed, "Can this be Naomi?"

-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Don't call me Naomi," she told them. "Call me Mara, because the Almighty has made my life very bitter.

-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I went away full, but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Why call me Naomi? The LORD has afflicted me; the Almighty has brought misfortune upon me."

-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So Naomi returned from Moab accompanied by Ruth the Moabitess, her daughter-in-law, arriving in Bethlehem as the barley harvest was beginning.

1:19 나오미
희락

1:20 마라
괴로움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사랑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15~18).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는 끔찍한 현실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픈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미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만을 놓고 살핀다면 그 심정을 이해 못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 룯이 꿈꿨던 얼어붙은 나오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며 참혹스런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도록 이끍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겨레가 나의 겨레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16절) 그야말로 흥년이 든 엘리멜렉 집안에서 한 이방 여인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탄생하자 벌써부터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는 듯합니다. 환영받지 못할 처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려는 룯의 믿음이 놀랍기만 한데,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헤아릴 줄 안 사랑이 두 사람을 결국 하나되게 합니다(17-18절).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룯 사이를 갈라놓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사랑으로 연합시키시며 그들 삶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2. 불평과 불신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19~22).

과부의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서기로 한 룯의 결단은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고 자란 모압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완전히 떠나 나오미의 나라가 섬기는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로 다짐한 것과 다름없는데, 룯의 확고한 믿음을 따라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19절).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향 땅에 들어서자마자 눈총을 받으며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대상은 룯이 아닌 나오미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19절) 오랜만에 보인 모습에 놀라고 그 행색이 초라하여 시선을 끌었던 걸로 보이는데, 피하고 싶은 시선에 나오미 안의 숨겨진 생각이 불쑥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20절) 기쁨의 삶을 바라기보다 ‘괴로움’, ‘쓴맛’과도 같은 인생을 자처하는 나오미 곁에서 어느새 추수를 준비하는 땅은 그녀의 인생에 일어날 새 일을 암시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절망하는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룯의 행보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2. 추수가 이른 땅은 나오미의 절망과 한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나의 삶을 은혜와 자비의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시선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0:4~7, 10~12 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⁵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⁶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⁷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 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¹⁰ 주님, 귀를 기울이 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¹¹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¹²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6

룻기 2:1~7

목요일

오늘의 찬송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말씀 속으로

-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from the clan of Elimelech, a man of standing, whose name was Boaz,

-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And Ruth the Moabitess said to Naomi, "Let me go to the fields and pick up the leftover grain behind anyone in whose eyes I find favor," Naomi said to her, "Go ahead, my daughter."

-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So she went out and began to glean in the fields behind the harvesters. As it turned out, she found herself working in a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from the clan of Elimelech,

-
-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
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and greeted the
harvesters,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they called back,

-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Boaz asked the foreman of his harvesters, "Whose young
woman is that?"

-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
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The foreman replied, "She is the Moabitess who came back
from Moab with Naomi.

-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
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harvesters.' She went into the field and has worked
steadily from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룯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갑니다(1~4).

룯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시점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1절).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인 그는 부유하고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룯이 처한 낮은 사회적 위치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도 어른인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 룯은 서열상 한참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밭으로 룯이 ‘우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을 베며 노동하는 자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습니다(3절). 그런데 마침 밭의 소유자인 보아스가 모습을 드러내며 노동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하시기를 비네”(4절) 여기에 전한 일꾼들의 답례 인사는 보아스가 참 인정어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해 주는가 하면, 오랜 세월 그들 간에 싹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랑이 창조될 예정입니다.

2. 보아스가 잠잠히 룯의 사연을 듣습니다(5~7).

일꾼들과 습관처럼 인사를 나누는 중에 유독 보아스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뉘 집 아낙인가?”(5절)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긴 노동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청하는 때에 룯이 발견됩니다(7절). 이렇듯 극적인 시간 속에 성사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여인의 정체를 묻는 보아스에게 일꾼들이 말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6절) 언뜻 출신만을 들었을 땐 더 이상 대화를 이어 나가지 않아도 충분했을 보아스이지만 일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그의 눈은 이미 하루종일 쉼 없이 노동하며 이삭을 줍고 있던 룯의 손길을 주목하며, 시어머니의 생계를 살피는 수고에 감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룯의 보배와도 같은 마음이, 그녀처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보아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3절의 ‘우연’, 7절의 ‘잠시’라는 단어가 어떤 울림을 줍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머무르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와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룯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는 일에 일꾼들이 돕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들 역시 룯을 받아들이며 보아스의 공동체를 넓힌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을 품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 내어준 필요함을 목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3,6 ¹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²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³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⁶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So Boaz said to Ruth, "My daughter, listen to me. Don't go and glean in another field and don't go away from here. Stay here with my servant girls."

-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Watch the field where the men are harvesting, and follow along after the girls. I have told the men not to touch you. And whenever you are thirsty, go and get a drink from the water jars the men have filled."

-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At this, she bowed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She exclaimed,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that you notice me - a foreigner?"

-
-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Boaz replied, "I've been told all about what you have done for your mother-in-law since the death of your husband - how you left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homeland and came to live with a people you did not know before.

-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May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 13 룿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she said. "You have given me comfort and have spoken kindly to your servant - though I do not have the standing of one of your servant girls,"

-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At mealtime Boaz said to her, "Come over here. Have some bread and dip it in the wine vinegar." When she sat down with the harvesters, he offered her some roasted grain. She ate all she wanted and had some left over.

- 15 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As she got up to glean, Boaz gave orders to his men, "Even if she gathers among the sheaves, don't embarrass her.

-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Rather, pull out some stalks for her from the bundles and leave them for her to pick up, and don't rebuke her."

2:14 그가
그들이

2:15 곡식 단
추수하는 자들이 밭 옆
에 남겨 두는 수확된 곡
식 더미를 가리킨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보아스가 롯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8~13).

롯의 형편을 알게 된 보아스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 딸아”(8절) 히브리어로 높은 지위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서열로 한참 아래인 이방 여인에게 사용된 장면에서 롯 앞에 전개될 새로운 삶이 짐작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기꺼이 허락하는가 하면, 일꾼들이 길에 온 생수를 언제든지 마시도록 섬세하게 배려합니다(8~9절). 이리저리 전전궁궁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을 안식처가 생겼으니 롯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되는 사이, ‘마라’ 곧 ‘쓴맛’이라고 탄식하던 나오미의 절규 끝에 마련된 풍성한 생수는 여호와와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서둘러 롯이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며 묻습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10절) 그녀가 겸손해 서도, 용모가 아름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과부의 여인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단한 믿음을 칭송합니다(11절). 그리고는 롯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듯 보아스가 롯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을 간구합니다(12절).

2. 보아스가 롯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합니다(14~16).

여호와와의 보호 아래 살아갈 롯의 인생을 축복한 보아스가 이번에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드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14절) 어느새 주변에 일꾼들이 함께하고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에서 보아스 공동체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롯이 묘사됩니다. 보아스가 내은 볍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기록은, 롯이 짊어진 모든 짐이 머지않아 해산될 미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운 롯이 다시금 노동하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지시합니다.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하게.”(16절) 어떻게 이토록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롯을 알아본 보아스의 마음이야말로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법 부유한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손 내밀 줄 알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오미를 향한 고백대로 롯은 보아스에게 축복을 받으며 롯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갚아 주신다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심고 거두는 인생이길 기도합니다.
2.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모압 여인 롯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나에게도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4,7 ⁴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⁷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8

룻기 2:17~23

토요일

오늘의 찬송 337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말씀 속으로

-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So Ruth gleaned in the field until evening. Then she threshed the barley she had gathered, and it amounted to about an ephah.

-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She carried it back to town, and her mother-in-law saw how much she had gathered. Ruth also brought out and gave her what she had left over after she had eaten enough.

-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Her mother-in-law asked her, "Where did you glean today? Where did you work? Blessed be the man who took notice of you!" Then Ruth told her mother-in-law about the one at whose place she had been working. "The name of the man I worked with today is Boaz," she said.

-
- 20 나옴이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옴이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The LORD bless him!”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He has not stopped showing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he dead.” She added, “That man is our close relative; he is one of our kinsman-redeemers.”

- 21 모압 여인 룓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Then Ruth the Moabitess said, “He even said to me, ‘Stay with my workers until they finish harvesting all my grain.’”

- 22 나옴이가 며느리 룓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Naomi said to Ruth her daughter-in-law, “It will be good for you, my daughter, to go with his girls, because in someone else's field you might be harmed.”

- 23 이에 룓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So Ruth stayed close to the servant girls of Boaz to glean until the barley and wheat harvests were finished. And she lived with her mother-in-law.

2:17 한 에바

약 일주일에 달하는 음식의 분량으로 해석된다.

2:20 기업을 무를 자

레 25:25를 보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나오미도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17~19).

보아스의 자비에 힘입어 릿은 걱정 없이 이삭 줍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비로소 그녀의 노동도 마무리됩니다. 한편, 노동하러 밭에 나간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나오미가 내심 염려했을 그때에 릿의 손에 들린 한 에바에 달하는 보리와, 식탁에서 먹고 남은 식량이 보입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19절) 놀랍게도 자신을 가리켜 ‘마라’라고 이르며 자조 섞인 탄식을 내뱉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한 폭의 장면에서 모압 땅에서 끌려나오듯 끌려나온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회복되고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과부의 현실이 하루 종일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는 데서 나아가 노동하지 않아도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2.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릿이 축복을 받습니다(20~23).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20절) 단번에 그를 알아차리고 축복하는 음성에서 학자들은 엘리멜렉 집안이 이전에도 보아스에게 호의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를 떠나 릿의 손에 들린 양식만으로도 그의 사람됨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나오미의 마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아스와 릿의 관계를 염두에 두기 시작합니다(22절). 그래서 릿을 향해 보아스 집안의 여자 일꾼들과는 함께 나가되 남자들과의 접촉을 삼가게 하는가 하면, 다른 밭에는 가지 말기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릿이 시어머니 말에 즉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이삭을 줍습니다(23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리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릿은 보아스의 호의 아래 머물며 나오미를 정성껏 돌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시어머니를 품은 그녀의 결단이 두 과부 모두를 헤아릴 줄 아는 큰 사람 보아스를 선물로 맞아들이게 해 준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오미의 변화된 고백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적어 봅시다. 믿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라는 사실을 함께 새기며, 은혜의 빛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2. 시어머니를 봉양한 마음이 릿에게 복을 가져다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뒷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71~75 ⁷¹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⁷²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⁷³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⁷⁴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⁷⁵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글 홍성민 (부목사)

공항 폭발물 신고에 간혀 새벽녘에 간신히 빠져 나와 <쉐루트^{Sherut}>라는 합승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첫 손님인 듯, 주소를 확인하더니 짐과 함께 가장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2시간이 흐르자 7~8명의 승객이 더 탔고, 여명이 동터 오르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연신 오르막을 내달렸습니다. 깊은 계곡과 꼬불꼬불한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지나며 승객을 하나둘씩 내려놓습니다. 초조한 마음은 역시 적중합니다. 모든 승객이 다 내리자 운전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 집 주소가 어디냐?” 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꼬불꼬불한 길로 멀미가 날 것 같고, 긴 시간의 비행과 공항에 갇힌 일,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쉐루트> 기사까지, 이스라엘의 첫 인상이 멋지게 선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두가 상상하듯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면 금, 토, 주일의 이상한 세 번의 안식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이슬람교, 토요일에는 유대교, 주일에는 기독교의 예배가 있는데, 공식적인 휴일인 토요일에는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간 관리는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 목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시간 관리 그 첫째로 안식일을 소개합니다(1-3절).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인데, 우리 삶에 일을 중단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인들은 특히 ‘일^{work}’을 분류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은 밭을 가는 행동,

수확하는 행동(출 34:21), 불을 피우는 행동(출 35:3) 등 몇 가지를 ‘일로’ 분류하지만, 미쉬나는 40에 하나 덜한 39가지를 ‘일로’ 소개합니다(Mish. Shabbat 7:2). 그 3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뿌리기, 쟁기질하기, 거두기, 단 묶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곡식을 씻기, 곡식 연삭, 체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 세탁(표백), 양털 치대기(때리기), 양털 염색하기, 실 물레질하기(방직), 베틀로 짜기, 두 실타래 만들기, 두 개의 실타래 엮기, 두 개의 실타래를 분리하기, 매듭을 묶기, 매듭을 풀기, 두 바늘로 함께 바느질하기, 두 바늘로 바느질하기 위하여 찢기, 사슴을 사냥하기, 그것을 도축하기, 가죽 벗기기, 고기를 소금에 절이기, 가죽을 훈제하기(소금에 절이기), 고기를 문대기, 고기 조각 내기, 두 글자를 쓰기,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기, 집 짓기, 건축하려고 부수기, 불끄기, 불붙이기, 망치질, 장소를 이동하기이다. 이것들이 40에 하나 덜한 주요 일이다.

위 항목들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먹고 살기 위한 아주 소소한 숨은 행동과 기초적인 작은 행동 하나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철저하게 한 듯 보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해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저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보통 <하브달라>(분리, 구분)라는 행사로 안식일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해가 질 무렵, 하늘에 별이 3개 정도 보일 때 하는 ‘구별’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로 거룩한 안식일과 나머지 6일을 구별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촛불을 높이 하늘로 치켜들게 합니다. 빛이 세상에 더 잘 비추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브달라> 행사를 더 늦은 시간에 하려고 미루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한다며, 주일에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마니교도에게 한 고백록의 한 자를 적어 봅니다.

“누가 인간들의 마음을 붙들어 잠깐 동안만이라도 고요히 머물러 있게 하며, 항상 머물러 있는 저 영원의 광휘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까?” (고백록, 11:10)

우리가 ‘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있을까요?

1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2/19~25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시 56:10)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말씀 속으로

- 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One day Naomi her mother-in-law said to her, "My daughter, should I not try to find a home for you, where you will be well provided for?"

- 2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Is not Boaz, with whose servant girls you have been, a kinsman of ours? Tonight he will be winnowing barley on the threshing floor.

-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Wash and perfume yourself, and put on your best clothes. Then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but don't let him know you are there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
-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When he lies down, note the place where he is lying. Then go and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He will tell you what to do."

- 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I will do whatever you say," Ruth answer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절망 중의 나오미가 조금씩 깨어납니다(1~2).

깊은 겨울 잠을 깨고 일어난 듯 나오미의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애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1절) 한숨 섞인 절규와 한탄이 가득했던 마음이 이토록 강인하게 변화된 배경에는 나오미 한 사람을 평생에 따르며 함께하기로 약속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여인 루트의 믿음이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킨 셈입니다. 이것이 끝내 숨어 계신 것 같았으나 실상은 두 사람을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며 유다와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나오미이지만 선불리 행동하지 않고 기회를 살필 줄 아는 지혜도 돋보입니다. 그녀의 지혜를 통하여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껌질을 까고 낱알을 분리하는 날에 보아스와 루트의 만남이 조심스레 성사됩니다(2~3절). 나오미를 향한 루트의 사랑이 이곳까지 이끌어 왔다면, 구원하는 사랑을 받은 나오미가 이제는 루트의 인생을 일으킵니다.

2. 현숙한 두 여인이 묘사됩니다(3~5).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3절) 도발적으로 들릴 법한 나오미의 권면 이면에 절제와 신중함이 묻어납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곱게 치장한 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즐거움이 차분히 정리되고 모두가 잠을 청하는 때에 보아스에게 다가가기를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4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나오미의 명령은 그가 베푼 호의를 끝까지 잊지 말고 겸손함을 보이라는 부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4절) 루트 집에 돌아온 날, 손에 들린 가득한 양식을 보면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직접 말할 때까지 조심하도록 권하는 음성에서 루트가 그녀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깨달아지는 듯합니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5절) 과연 현숙한 루트만큼이나 나오미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녀 안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루트와 나오미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루기서를 묵상하면서 배우자 혹은 자녀 간의 관계를 돌아보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2. 감정의 확신은 있었지만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나오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니까? 나의 삶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있는 한 해를 보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5~8 ⁵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⁶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⁷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⁸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6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and did everything her mother-in-law told her to do.

-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When Boaz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and was in good spirits, he went over to lie down at the far end of the grain pile. Ruth approached quietly, uncovered his feet and lay down.

- 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thing startled the man, and he turned and discovered a woman lying at his feet.

- 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됴니이다 하니

"Who are you?" he asked. "I am your servant Ruth," she said.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since you are a kinsman-redeemer."

-
-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The LORD bless you, my daughter,” he replied, “This kindness is greater than that which you showed earlier: You have not run after the younger men, whether rich or poor.

- 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And now, my daughter, don't be afraid, I will do for you all you ask. All my fellow townsmen know that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

- 12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Although it is true that I am near of kin, there is a kinsman-redeemer nearer than I.

- 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
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
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Stay here for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if he wants to redeem, good; let him redeem. But if he is not willing,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will do it. Lie here until morn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곡식 더미의 끝에서 롯과 보아스가 만납니다(6~9).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길을 나선 롯의 결단에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윅고 이루어집니다(6절). 타작마당에서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리며 취한 보아스가 곡식 단 더미의 끝으로 다가가 눕습니다(7절). 그 모습을 보며 움직인 롯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따라서 눕는데, 밤중에 깨어난 보아스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8~9절). “누구요?” “어른의 종 롯입니다.” 보아스의 하녀만도 못하다는 고백을 한 롯이 지금은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밝힙니다. 두 사람을 에워싼 깊은 밤이 서로의 신분마저 가려주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발언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시어머니를 이끌고 베들레헴에 온 롯을 향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왔다고 축복했던 보아스가 축복의 내용이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우연스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며, 두 사람이 마주한 자리가 곡식 더미의 ‘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 보아스는 중심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10~13).

보아스의 입장에선 예고 없는 롯의 방문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밤중에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차분히 들어주는 데 이어 변함없이 “내 딸아” 하고 부르는 음성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느껴집니다(10절; 2:8). 그리고 그런 자에게 비친 롯의 모습 또한 신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 준 가룩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 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10절) 보아스는 롯의 외모 혹은 그녀가 놓인 처지를 보지 않고, 나오미 곁에서 지금까지 정성스레 헌신하며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길 줄 안 믿음을 헤아렸습니다. 결국 고귀한 롯의 마음이 신실한 자 보아스의 마음을 사고 감동마저 줍니다. 그러나 보아스 역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먼저 공동체의 질서를 살피는 지혜를 보입니다(12~13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책임에 있어서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친족을 고려한 걸로 추측되는데, 그럼에도 밤중의 롯을 아침까지 보호해 주며 사랑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여긴 곡식 더미 끝에서 보아스와 롯이 만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까?
2. 보아스는 롯의 중심을 보고 그녀의 행동을 포용합니다. 롯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중심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9~12 ⁹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¹⁰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¹¹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¹²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4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So she lay at his feet until morning, but got up before anyone could be recognized; and he said, "Don't let it be known that a woman came to the threshing floor."

- 15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He also said, "Bring me the shawl you are wearing and hold it out." When she did so, he poured into it six measures of barley and put it on her. Then he went back to town.

- 16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When Ruth came to her mother-in-law, Naomi asked, "How did it go, my daughter?" Then she told her everything Boaz had done for her

-
- 17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and added, "He gave me these six measures of barley, saying,
'Don't go back to your mother-in-law empty-handed.'"

- 18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
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Then Naomi said, "Wait, my daughter, until you find out what
happens. For the man will not rest until the matter is settled
today."

3:15 지워 주고 성읍으
로 들어가니라
수리아와 라틴 번역에
는, 이워 주니 그가 성으
로 돌아가니라

3:16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보아스가 롯에게 풍성한 식량을 쥐어 줍니다(14~15).

밤중까지 롯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 머물며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에 깨어나고, 보아스도 그녀를 나오미의 품에 우선 돌려보내고자 합니다(14절). 혹시라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롯이 발견된다면, 신변에 해가 가해질까 염려한 까닭입니다.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은 비단 롯만이 아니라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에게도 향합니다. “걸치고 있는 겹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십시오.”(15절) 그리고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보내고자 하는데,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 첫날 주운 이삭의 세 배에 가까운 양식이었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그 모습에서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을 환대하며 품은 다윗의 면모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식량을 얻어 돌아가는 롯의 발걸음과 함께 폐허더미 같은 나오미의 집안에 태어날 새 생명의 소식이 점차 다가옵니다.

2. 기다림도 구원의 시간입니다(16~18).

돌아오는 롯을 바라보며 나오미가 묻습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16절)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롯의 손에 들린 양식을 보고 보아스의 대답을 짐작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차분히 롯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대답합니다(17절).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18절) 보아스가 할 일을 일러 줄 것이라는 고백에 이어 이번에도 보아스의 움직임을 차분히 기다리는 나오미의 고백 안에서 흥년이 든 고향 땅을 선불리 떠난 남편 엘리멜렉의 발걸음도 치유되는 듯합니다. 이렇듯 나오미와 롯, 보아스가 서로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도 함께하시며, 이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원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보아스는 기업 무를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친족을 찾아가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전한 보아스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시기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도 하십니다. 롯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에 관하여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18~22 ¹⁸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¹⁹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²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²¹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²²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3

룻기 4:1~6

목요일

오늘의 찬송 95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말씀 속으로

-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Meanwhile Boaz went up to the town gate and sat there. When the kinsman-redeemer he had mentioned came along, Boaz said, "Come over here, my friend, and sit down." So he went over and sat down.

- 2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Boaz took ten of the elders of the town and said, "Sit here," and they did so.

-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Then he said to the kinsman-redeemer, "Naomi, who has come back from Moab, is selling the piece of land that belonged to our brother Elimelech,

-
- 4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
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
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I thought I should bring the matter to your attention and suggest that you buy it in the presence of these seated here and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of my people. If you will redeem it, do so. But if you will not, tell me, so I will know. For no one has the right to do it except you, and I am next in line.” “I will redeem it,” he said.

- 5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Then Boaz said, “On the day you buy the land from Naomi and from Ruth the Moabitess, you acquire the dead man's widow, in order to maintain the name of the dead with his property.”

- 6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
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
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At this, the kinsman-redeemer said, “Then I cannot redeem it because I might endanger my own estate. You redeem it yourself. I cannot do i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납니다(1~4).

밭ちに 누운 룻에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3:13) ‘그’라는 자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 받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확인을 거친 후에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길 원했고, 이를 위하여 성문에 올라가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마침 지나가는 그를 보게 되자 급히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1절) 그리고는 그곳에 열 장로를 청하여 증인으로 내세웁니다(2절). 당시에 인적이 많은 성읍에서 열려진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공표한다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렇듯 심혈을 기울이며 일을 진행하는 면모에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보아스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껴집니다.

2. 친족이 기업 무를 책임을 거절합니다(5~6).

보아스와 아무개라 기록된 친족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5절) 우리는 여기서 엘리멜렉의 유산을 받는 일에 먼저 집안과 하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집안에 남겨진 과부와 혼인을 맺어 과부를 살리고, 후손을 잇는 일에 책임을 다할 때에 비로소 물질적인 재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때에 아무개라 하는 자는 자신이 입을 피해만을 계산하며 축복을 거절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6절) 생명을 건지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 그와 달리, 현숙한 여인 룻과 그녀가 섬기는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안 보아스에게 축복이 결국 임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하는 보아스의 현명함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2. 은혜의 큰 차원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얻을 소득에만 관심을 둔 친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아스와 두 사람의 대화가 소개된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사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12~14 ¹²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¹³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¹⁴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Now in earlier times in Israel, for the redemption and transfer of property to become final, one party took off his sandal and gave it to the other. This was the method of legalizing transactions in Israel.)

-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So the kinsman-redeemer said to Boaz, "Buy it yourself." And he removed his sandal.

-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Then Boaz announced to the elders and all the people, "Today you are witnesses that I have bought from Naomi all the property of Elimelech, Kilion and Mahlon.

-
- 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I have also acquired Ruth the Moabitess, Mahlon's widow, as my wife, in order to maintain the name of the dead with his property, so that his name will not disappear from among his family or from the town records. Today you are witnesses!"

-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Then the elders and all those at the gate said, "We are witnesses. May the LORD make the woman who is coming into your home like Rachel and Leah, who together built up the house of Israel. May you have standing in Ephrathah and be famous in Bethlehem.

- 1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Through the offspring the LORD gives you by this young woman, may your family be like that of Perez, whom Tamar bore to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합니다(7~10).

기업 무를 책임에 있어서 ‘아무개’라 하는 친족이 포기한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양도됩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표하고자 친족이 신고 있는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기는 의식이 행해집니다(7~8절). 이와 함께 두 사람을 둘러싼 무리를 향하여 보아스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했습니다.”(9절) 그의 고백은 이곳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롯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에서 절정을 이룹니다(10절). 후손 하나 없이 쓰러진 엘리멜렉 집안을 세우는 일에 보아스의 헌신하는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대목입니다. 그를 보며 함께하는 사람들마저 사랑이 낳는 열매를 경험하고 있었을 듯한데, 보아스의 희생하고 내어 주는 사랑이 초석이 되어 이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2.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축복을 받습니다(11~12).

보아스를 둘러싼 성읍의 많은 무리들이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11절) 이스라엘을 세운 신앙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를 언급하며 유다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 롯을 직접 높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은 롯에게서 잉태될 미래의 상속자까지 예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보아스 가문을 칭송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반문하게도 됩니다(12절). 전능자의 보호 아래 사는 인생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선포한 대로 보아스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꽃을 피웁니다(2:12). 그 길에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외치던 나오미의 삶도 구원받으며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 웃음과 기쁨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윗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조상의 희생이 선행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희생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인 만큼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4:3~7 ³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⁴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⁵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⁶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⁷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3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 지라

So Boaz took Ruth and she became his wife. Then he went to her, and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and she gave birth to a son,

-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The women said to Naomi: "Praise be to the LORD, who this day has not left you without a kinsman-redeemer. May he become famous throughout Israel!"

-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He will renew your life and sustain you in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and who is better to you than seven sons, has given him birth."

- 16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Then Naomi took the child, laid him in her lap and cared for him,

-
- 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The women living there said, "Naomi has a son," And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This, then, is the family line of Perez: Perez was the father of Hezron,

-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Hezron the father of Ram, Ram the father of Amminadab,

-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Salmon the father of Boaz, Boaz the father of Obed,

-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Obed the father of Jesse, and Jesse the father of Davi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 베들레헴에 기쁨이 넘칩니다(13~17).

사람들 앞에서 공표한 보아스의 결단 안에는 그를 신뢰하고 따른 룯의 감정이 함께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를 선물해 주셨다고 직접적으로 밝힙니다(13절). 흥년이 든 땅이 회복되는 중에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찾아가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14절) 놀랍게도 하나님은 “네가 나오미냐!” 하던 여인들의 입에서 경배가 터지게 하시는가 하면, 나오미의 말년 인생을 이름대로 회복해 주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만의 생명인지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겼을 나오미와 함께 온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때에, 아이의 이름이 ‘오벳’ 곧 ‘섬기는 자’라고 알려어집니다(15~17절).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새의 아버지 오벳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허물보다 큼니다(18~22).

베들레헴에 깃든 흥년을 알리며 문을 연 룯기서는 의미심장하게도 한 아이의 탄생 소식으로 문을 닫습니다. 특히나 성읍 여인이 나오미를 찾아가 축복을 건네는 마지막 장면은 절규와 탄식에 갇힌 그녀의 삶이 마침내 기쁨과 감사로 구원받은 소식을 알리며, 모든 인생이 또한 그렇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늙은 과부의 인생이 찬미로 마칠 때까지 그녀 곁에 함께한 또 다른 젊은 과부 룯과 중년의 신실한 남자 보아스의 진실한 사랑은, 사랑 없는 열매의 무익함을 깨닫게도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듯 룯기서는 계보를 삽입하는데 계보 안에 등장한 ‘베레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다말이고, ‘살몬’의 아내 곧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는 점에서 이방의 혈통과 결혼하던 사사 시대를 풍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 룯에게서 오벳이 나고, 그의 아들 이새에 이어 다윗이 탄생하며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룯기서는 믿는 자의 인생의 마침표를 보여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과 슬픔, 기쁨과 행복 중에도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2.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허물을 덮고도 남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나와 가정, 우리 교회를 견인하시며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4~9 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⁵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⁶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⁷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⁸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⁹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남장로교 광주 선교사 묘역(호남신학대학교 선교묘역) | 광주 남구 제중로77

남장로교 광주 선교사 묘역은 호남신학대학교 구내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여기에는 광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묘 12기가 있었는데, 순천과 목포스테이션이 정리되면서 그곳에 있던 묘들을 지난 1979년 이곳으로 이장한 결과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지금은 순천에서 온 10기와 목포에서 옮겨진 4기 등을 합해 모두 26기의 묘가 이곳 묘역에 위치해 있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참고 -

- 네이버 검색 내용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돌뱅이 www.honggoon.net



by Hon@oono

2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2/26~3/4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
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시 145:3)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에스겔 37:15~28

오늘의 찬송 459 누가 주를 따라

 말씀 속으로

15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Son of man, take a stick of wood and write on it, ‘Belonging to Judah and the Israelites associated with him.’ Then take another stick of wood, and write on it, ‘Ephraim’s stick, belonging to Joseph and all the house of Israel associated with him.’

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Join them together into one stick so that they will become one in your hand.

18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When your countrymen ask you, ‘Won’t you tell us what you mean by this?’

-
- 19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am going to take the stick of Joseph - which is in Ephraim's hand - and of the Israelite tribes associated with him, and join it to Judah's stick, making them a single stick of wood, and they will become one in my hand.'

- 20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Hold before their eyes the sticks you have written on

- 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and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will take the Israelites out of the nations where they have gone. I will gather them from all around and bring them back into their own land,

- 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s of Israel. There will be one king over all of them and they will never again be two nations or be divided into two kingdoms.

- 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They will no longer defile themselves with their idols and vile images or with any of their offenses, for I will save them from all their sinful backsliding, and I will cleanse them.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 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My servant David will be king over them, and they will all have one shepherd. They will follow my laws and be careful to keep my decrees,

- 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They will live in the land I gave to my servant Jacob, the land where your fathers lived. They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will live there forever, and David my servant will be their prince forever,

-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I will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it will be an everlasting covenant. I will establish them and increase their numbers, and I will put my sanctuary among them forever.

27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My dwelling place will be with them;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Then the nations will know that I the LORD make Israel holy,
when my sanctuary is among them forev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15~23).

마른 뼈 환상에는 여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뼈들을 일으키시고 새 부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선언되는데, 그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두 막대기 각각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새기게 하시고는 둘을 합하여 하나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16~17절).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된 나라가 다시금 연합되는 미래를 펼쳐 보이신 셈인데, 이 비전을 받아든 에스겔이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18~22절). 사방에서 고국으로 귀환할 백성과 그들을 통치할 한 임금이 연상되는 순간, 여호와와 한마디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23절) 성소를 떠나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은 허물을 허무시고 부르심을 따르는 새 삶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을 먼저 위합니다(24~28).

성경은 남과 북이 하나된 나라를 다스릴 한 임금을 가리켜 '내 종', '한 목자'라고 칭합니다(22;24절). 놀랍게도 그가 여호와와 규례와 율례로 다스리자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찬만해지며,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번성케 되는 축복을 영위하게 됩니다(25~26절).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지휘 아래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가 점차 확장되고, 그 안에서 나라가 부요해지는 역사가 예고된 셈입니다. 한편으로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스스로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고 선언하시며, 이 언약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토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이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삶 없이는 영원한 축복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27절).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손길 아래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영광을 맛보게 되고, 열국도 마저 뒤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28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2. 하나님은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 안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초대하시며 그들을 높여 주십니다. 이 은혜에 부름받은 자로서 나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8:10~14 ¹⁰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¹¹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 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¹²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¹³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¹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on the nearby hillside.

-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The demons begged Jesus, "Send us among the pigs; allow us to go into them."

-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He gave them permission, and the evil spirits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The herd, about two thousand in number,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
-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saw the man who had been possessed by the legion of demons, sitting there,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 and told about the pigs as well.

-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Then the people began to plead with Jesus to leave their region.

-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As Jesus was getting into the boat,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to go with him.

- 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family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28

— 화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귀신 들린 돼지 떼 이천 마리가 바다에 빠집니다(11~14).

배를 타고 도착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붙잡던 귀신이 곧바로 저항해 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들킨 귀신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12절) 유대인에게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로마 제국 아래서는 부를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제국과 인접한 이곳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간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데 그 무리가 무려 이천 마리에 달합니다(13절). 과연 한 사람을 묶고 있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나는 한편, 이천 마리의 돼지 떼가 순식간에 바다에 빠지자 막대한 손실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14절).

2. 어둠의 땅에 복음의 소식이 울립니다(15~20).

돼지를 친 사람들이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15절). 그런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멀쩡히 제 정신을 찾으며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문을 채 알 수 없는 광경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자 속히 떠나보 내기를 결심합니다(16~17절).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눈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돼지 떼 생각이 떠오르자 더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던 땅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때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은 배에 오르는 주님을 붙잡으며 떠나지 마시기를 애원합니다(18절).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족에게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을 널리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19절). 버림받았다가 건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에 관한 소문이 그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2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건짐받은 생명은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재산 피해를 계산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록해 봅시다.
2. 예수님은 재물의 세력에 맞서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나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9~13 ⁹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¹⁰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¹¹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¹²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¹³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는 경험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가 흘러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적시는 경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심장을 흔드는 경험,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올 한 해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의 경험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의지하며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품을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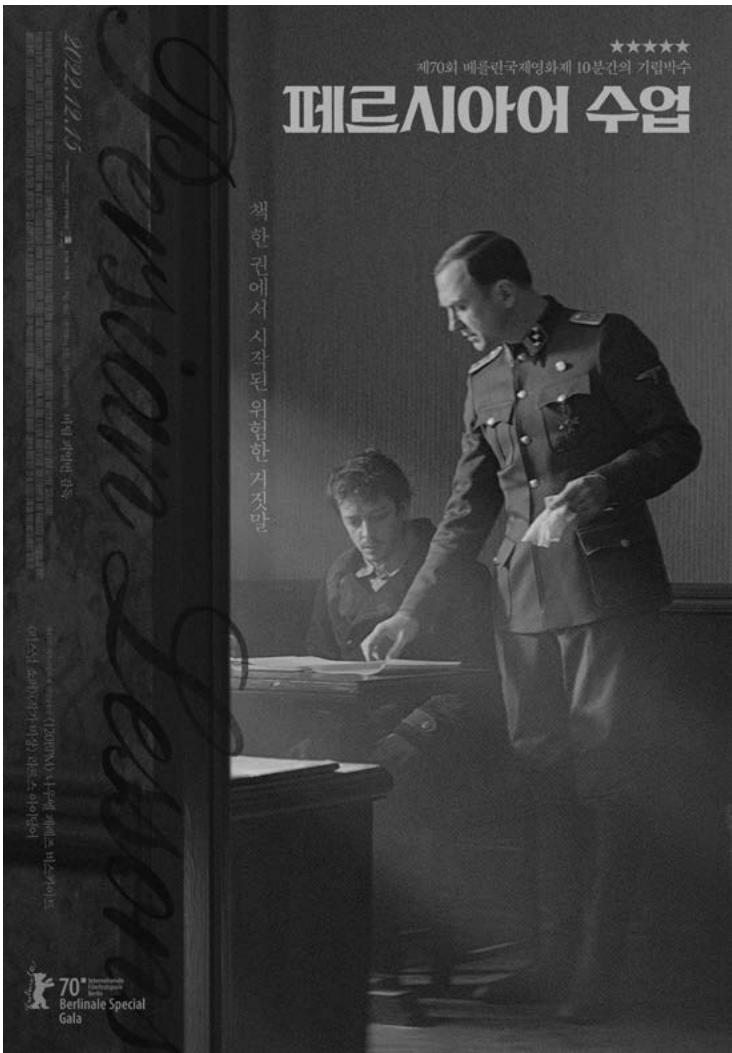
아내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남편은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조부모님들은 깊이 있는 신앙의 경륜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우리 안에 대를 이어 많아지게 하옵소서.

2023. 1. 13(금) 새벽기도회 중에서

〈페르시아어 수업〉을 통해 본 역경 극복의 지혜

글 황영미 (집사)



유대인 홀로코스트

2차 세계 대전 시기 중 나치 독일이 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는 1945년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도 많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쥬다를리 리스트>, 그 외에도 <인생은 아름다워>, <제이콥의 거짓말> 등이 있으며,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영화화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개봉 중이며 22년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 역시 1942년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핵심 스토리다.

야곱이 죽을 췌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법게 여김이었더라
(창 25:29~34)

<페르시아어 수업> 오프닝은 마지막 장면과 동일하게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작한다. 신세벽 숲속을 빠져나오는 어두운 표정을 한 남자가 화면에 비친다.

“당신이 수용소에 있는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나요?”
“3만 명 정도 되고 수용소 기록부에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 기록부를 보세요.”
“수용소의 모든 기록물은 해방 전 나치가 철수하기 전 모두 불태웠어요.”
“기억에 남은 이름이 있습니까?”라는 화면 밖 목소리가 들린다.

오프닝이 끝나자마자 나치에게 끌려가는 트럭 안에서 주인공 질(나우엘 페레즈 비스카야트 분)에게 옆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 질이 샌드위치가 있다고 답하자, 그는 주인이 떠나고 난 주인집에서 훔쳐온 귀한 페르시아어 신화 초판본을 줄 테니 샌드위치를 달라고 한다. 처음에 질은 책이 필요없다고 거절한다. 그러나 반 조각만 달라고 사정하자, 페르시아어 책을 받고 샌드위치를 준다. 질은 책에 써여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에게 물어본다. 레지는 또 뭐냐고 물어보니 주인집 아들 이름이라고 알려 준다.

책을 판 남자는 그 책이 생명을 구할 책인지 전혀 모르고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판 에서처럼, 샌드위치 반 조각을 먹기 위해 페르시아어 책을 질에게 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살되었으나 질은 그 책을 내밀며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이라고 주장하고, 수용소에서 이름을 레지로 바꾸고, 목숨을 구한다.

〈페르시아어 수업〉의 상황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태어난 〈페르시아어 수업〉의 감독 바딤 피얼만(페렐만)은 자신의 이민 경험을 반영하여 원작 소설 〈모래와 안개의 집〉의 각본과 감독을 맡으면서 영화계에 첫발을 내딛었는데, 이번 〈페르시아어 수업〉 역시 원작을 각색하여 영화화하였다. 원작은 독일 작가 볼프강 콜하제(Wolfgang Kohlhaase)의 실화 바탕의 단편 소설 〈Erfindung Einer Sprache〉(언어의 발명)이다. 질은 겨우 살아남아 수용소에 가게 되고, 종전 후 테헤란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에 페르시아어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독일군 장교 코흐 대위에게 페르시아어 수업을 하게 된다. 페르시아어라고는 언어들은 한두 마디밖에 모르는 그는, 하루에 가짜 페르시아어만 수십



단어를 만들어 코흐 대위를 가르친다. 그리고 들리지 않으려면 말했던 가짜 단어를 모조리 외어야 했다. 단어 조합을 하기 위해 수용소에 온 사람들의 이름을 앞자리만 없애고 단어를 만들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 단어가 되었다. 점차 질과 코흐 대위 사이에 가짜 페르시아어로 의사소통은 물론 시까지 창작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도 발생한다. **죽지 않기 위해 엉터리 페르시아어를 만들어 가는 질을 보면 처절한 역경 속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편으로 언어라는 사회적 약속을 개인이 바꾸는 스토리인 페터 비셀의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단편 소설도 떠오른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게 된 주인공 노인이 기존의 언어 체계에 답답함을 느껴,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의 이름을 하나씩 바꿔 부르다가 중국에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야기다. 〈페르시아어 수업〉 엔딩 역시 언어란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하기 위한 약속이며 도구라는 것을 환기시켜 준다.

역경 극복의 지혜

<제이콥의 거짓말>(2000)이라는 영화가 있다. 피터 가소비츠가 감독한 이 영화는 야곱의 영어식 이름인 주인공 제이콥(로빈 윌리엄스 분)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희망의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1944년 겨울, 나찌가 점령한 폴란드 내 유대인 게토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이콥은 어느 날 밤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죄로 독일군에게 불려간다. 독일군의 본부에서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제이콥은 소련군이 폴란드의 가까운 지역에서 독일군을 물리쳤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엿듣게 된다. 운 좋게 제이콥은 사형을 면하게 되고, 몇 년 만에 듣는 전쟁 관련 뉴스를 친구에게 전한다. 이 소문은 수용소에서 일파만파 조심스럽게 퍼져 사살하려던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찾게 되기도 하고,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진행된다. 이후 제이콥은 연합군이 나찌를 물리치고 진격한다는 뉴스를 중계하기도 한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 소식은 주민들에게 활기와 희망을 가져다주고 독일군의 수사가 이후 시작된다. 그는 사형되는 순간에도 목숨을 건 거짓말을 고수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후 독일이 패망하며 그의 거짓말은 실제가 되었고, 영화는 거짓말의 지혜가 사람을 구하게 된 것을 보여 준다.

<페르시아어 수업>은 태워 버린 나치의 기록부에 있는 이름을 3천 개 가까이나 외우고 있는 질 덕분에 수용소의 명단을 복구하게 되는 과정을 결말에 보여 준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한 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에 쓰게 하셨다.

하나님은 남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셨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역경을 수 없이 만난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견디면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에게 드림부란,



‘인생학교’이다 | 김민지

1년 동안 드림부를 통해서 배우고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와 분반 모임을 통해 선생님들과 나누는 대화를 기대하며, 그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버틸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수 생활을 하는 중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 주신 길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수하며 잃은 1년의 시간보다 좋은 인연, 지식, 실력, 단단한 정신력과 믿음을 얻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순 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며 마음과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주신 드림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 드립니다. 혹시나 N수 생각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와 주세요!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실 겁니다!

‘날개’다 | 방효원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듯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없으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드림부는 신앙을 가꾸고 유지하게 해 준 소중한 날개입니다. 특히 저는 홀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했던 만큼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뒷걸음질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문제를 회피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림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선 순간, 괴로워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분을 다시 찾고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부 예배에 참석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일찍 일어나 공부하면서 능력이 오르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숨표’다 | 최지윤

지난 한 해 입학 시험을 다시 준비하며, 실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만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드림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만을 따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스스로의 밑바닥을 돌아보고 거듭날 수 있었듯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불러 주셔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하여 차마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들,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가족 외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은 저에게 드림부는 숨구멍이었습니다. 이 숨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제 삶이라는 음악의 한 악구를 믿음 안에서 연주하게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지탱해 준 뿌리다 | 장진

1년간 드림부에서 지내며 매주 주일 아침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간 쌓인 피로 때문에 피곤할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드림부’가 있어서 매주 이른 아침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전도사님의 반가운 인사와,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힘든 재수 생활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능 40일을 앞두고 시작한 40일 기도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찬송을 듣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써 주신 기도와 응원 메시지가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림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재수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드림부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고, 앞으로도 소중할 것입니다.

‘바다이다 | 이민서

저에게 드림부는 언제 찾아가도 수험 생활의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민을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털어놓을 때마다 묵묵히 들어주시는 모습이 마치 여행갈 때마다 경유하는 바다 같습니다. 우울할 때 생각하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바다처럼요.

특히나 드림부의 여름수련회는 수많은 바다 중 정말 아끼는 바다입니다. 찬양팀 선생님들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물입감 넘치는 전도사님의 설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녁 예배는 항상 방에서 눈치 보며 소리 없이 울던 제가 마음껏 울면서 수험 생활을 이겨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첫날부터 일기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드림부가 저처럼 상처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털어내고 갈 수 있는 바다가 되기를요. 드림부에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드림부 선생님이 된 올해, 다정한 파도가 되어 받은 사랑보다 더 주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해 준 드림부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활력소’이다 | 임예은 학생

매주 드림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능 40일 기도회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와 분반공부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안식을 얻었고, D-40 기도수첩을 매일 작성하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림부 선생님들이 쓰신 기도문을 읽으며 많은 위로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다들 너무 잘 챙겨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림부는 수험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딱 맞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 볼 준비를 하는 친구들 모두 드림부에 와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게 한 힘’이다 | 서승연

재수는 고3때랑 다르기도, 또 처음해 보는 거라 두렵기도 했습니다. 조금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체력이 버티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드림부는 공부하게 해 준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주일의 힘들음을 털어놓고, 분반모임을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상황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갈수록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선생님들의 조언과 나눈이 새로운 한 주를 버티게 해 준 의지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에 드림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신앙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드림부에 올 일도, 주님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수련회를 가 본 적 없는 저에게 드림부 수련회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들이 참 감사했고, 드림부에 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선생님이 보내 주신 문자와 편지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교회에서의 시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신앙심을 심어 준 드림부, 저에게 힘을 준 공동체와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현화이야기 14

2월, 우리의 고백

1월 1일

글 송미란 (권사)

새해에 드리는 예배의 헌화가
대단한 영광이자
하나님 주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1월 8일

글 임한숙 (권사)

2023년 새로운 날들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기 예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15일

글 김미혜 (권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 62:5-7)

성전에서 잠잠히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망이
버들강아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알이 맺혀
하늘에 닿아,
하늘 문이 열리는 감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버들의 꽃말 : 포근한 사랑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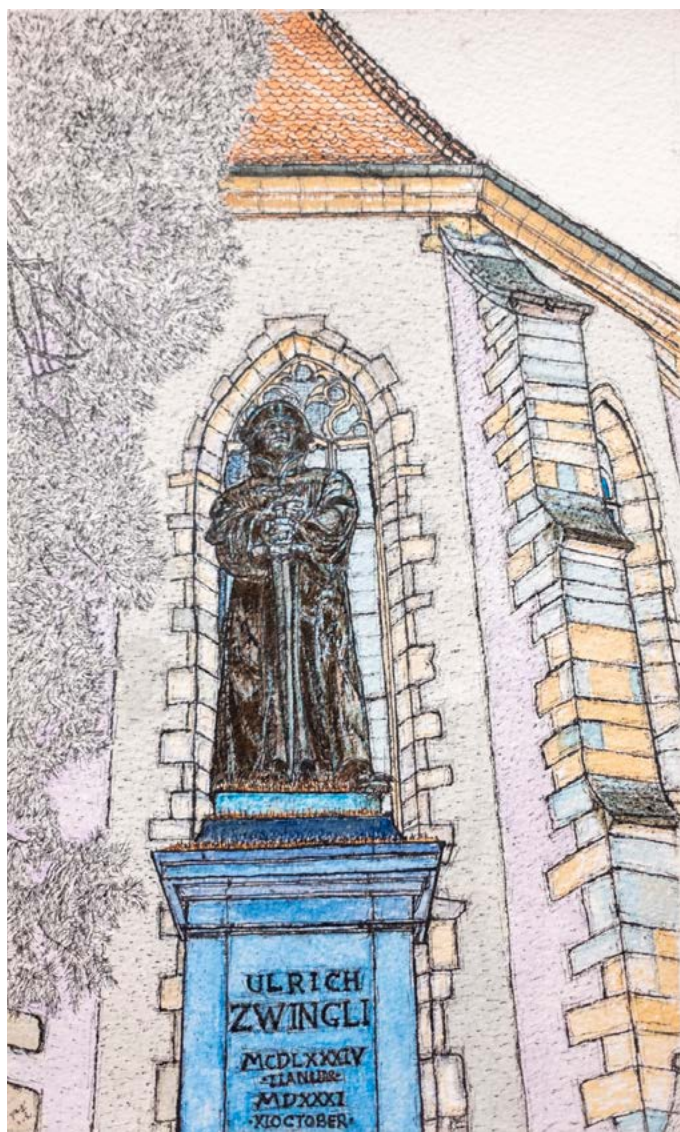


그림 1

취리히 그로스뮌스터(대성당) 가까이에 바서 교회^{Wasserkirche}가 있다. [그림1]은 1885년 교회 앞에 세워진 츠빙글리 동상이다. 이 동상은 오른손에 든 성경을 가슴에 대고, 왼손에 쥔 칼로 땅을 짚고 서 있다. 동상 아래에는 로마 숫자로 그가 1484년 1월 1일 출생하여 1531년 10월 11일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동상은 츠빙글리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1884년에 계획하여 이



그림 2

듬해 공개되었다. 제막식에 참석했던 교회사학자 필립 샤프는 이 동상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전해 준다. 동상 건립위원회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알렉산더 슈바이처 박사는 츠빙글리가 칼을 든 형상에 불만을 표하고 위원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현재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진 것은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 개혁까지 포괄하는 성격을 지녔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교회(성경)와 국가(칼) 모두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우기를 열망했던 츠빙글리의 개혁 정신을 잘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개혁교회 의장 게오르크 핀슬러는 동상이 든 물건을 두 개의 칼, 즉 성령의 칼인 말씀과 츠빙글리가 살해당한 칼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림2)는 츠빙글리가 전사한 카펠에 세워진 기념비이다. 16세기 스위스는 로마 가톨릭 주와 프로테스탄트 주로 나누어져 대립했다. 그러던 중 1529년 5월 로마 가톨릭 주에서 복음을 전하던

프로테스탄트 설교자 야콥 카이저가 공개 화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1차 카펠 전투가 벌어졌다.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우세를 잡았지만, 보름 만에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1531년 10월 제2차 카펠전투가 발발했다. 이번에는 로마 가톨릭 측이 우세했다. 이때 츠빙글리도 전쟁터로 달려가 다음과 같이 병사들을 격려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고통당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옳은 편에 서 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보시리라. 오직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1531년 10월 11일 카펠 평원에서 군사들을 돌보던 츠빙글리는 적에게 사로잡혀 47세 나이로 죽음을 맞았다. 츠빙글리는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전승에 따르면, 츠빙글리 몸은 네 토막으로 찢겼고 화형에 처했다. 불에 탄 재는 돼지의 재와 뒤섞여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1838년, 츠빙글리가 숨을 거둔 현장에 그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졌다. “바로 이 자리에서 츠빙글리가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회의 자유를 위해 영웅적 죽음을 맞이하면서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하인리히 불링거, 장 칼뱅과 같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에게로 전해졌다. 지금도 개혁 교회와 장로교회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츠빙글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유산을 남겨 주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이다. 그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 교회 표어에 잘 반영되었다. 그는 자기 마음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둘째, 성경에 대한 강조이다. 연속적 강해 설교, 예언 모인, 자국어 성경 번역에서 보듯이 성경이야말로 츠빙글리 종교 개혁의 심장이고 원동력이었다. 셋째,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관심이다. 츠빙글리는 개인 구원을 넘어 취리히 시민과 스위스 국민의 구원을 열망하였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 구조를 새롭게 하는 노력으로 나아갔다. 츠빙글리의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한 주석》 마지막 문장은 그의 삶과 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 준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양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인간 감정의 표현_르네상스

글 허윤정 (집사)





그림 1. 지오토의 <애도>, 1450

지난 호에서는 중세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상화가 어떻게 세속화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미술의 변화와 관련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단서를 열어 놓음으로서, 자연 영역이 어떻게 은총의 영역을 침범해 나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르네상스 미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퀴나스의 인간관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중세의 비잔틴 문화는 영적인 영역을 강조한 반면,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삶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로 인해 자연과 자연에 속한 인간이 부각됩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개별자들을 강조했습니다. 개별자란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사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개별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이러한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은 화가로 지오토(Giotto di Bondone, 1267~ 1337)가 있습니다. [그림1]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형상화 한 작품 <애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의 모습들을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2, 그림3을 보면 예수의 죽음 앞에서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손을 아래로 뻗거나 양쪽으로 뻗은 모습 속에서 극한 슬픔이 표현됩니다. 그림4, 그림5의 천사는 양손을 얼굴에 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작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6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조차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사실 현대인의 감성으로 이 작품을 보면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지각은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금 더 자극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작품과 비교하면 이 작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세의 성상화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다. 중세의 회화와 조각 작품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식적으로 천사임을 알려 주던 비잔틴 양식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투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애도> 작품은 인간적인 시선에서 구도를 처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림 6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중세에는 볼 수 없던 구도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오토의 <애도>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전에 습작으로 자화상을 그릴 때 제 모습 옆에 천사의 모습을 그려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저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저를 향해 슬퍼하는 천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아를 내세우는 저에게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간절한 천사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와 선함을 경험하지만, 미술 작품의 미적 체험을 통해 말씀을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열어 주님 만나는 체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 그림 1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iotto_di_Bondone_009.jpg

- 그림 2~5는 그림 1의 부분도

혈루병 여인이 잡은 예수님 옷자락

글 백광흠 (장로)



예수님의 눈물과 기도가 깃든 기도 수건의
술을 만진 순간에 여인이 고침을 받는다.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행기 착륙이 금지되면서 이스라엘 순례가 무산되었다. 그러다 3년 만에 순례를 다시 계획하고 있는데, 가이드 목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하는 중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나누고자 한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고, 선교하는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누가 복음 8장 43~44절에는 혈루증을 열두 해 앓은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눅 8:44)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으로 의학 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었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안과대학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과를 비롯하여 비뇨기과, 외과 수술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했고,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정도는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 받을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많은 의료인과 의료 시설의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막 5:26)

성경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절박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전한다. 이 스라엘 배경에서 ‘옷가’는 우리가 입는 옷의 소매 또는 끝자락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헬라어의 개념에서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의상의 표현이 없었기에 ‘옷가’라고 번역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회, 성전, 회당이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는 역사적 배경 뿐만 아니라 운율과 리듬 등이 담겨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옷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 무엇을 의미할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수건^{shawl}을 선물하는데 평생에 걸쳐 빨아서도, 세탁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 가득 채워지도록 사용하는 수건이다. 이 기도 수건의 이름이 ‘tallit’인데, tallit의 네 귀퉁이에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다섯 가닥의 실을 엮어 술을 단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만진 것이 바로 이 술^{tzitzit}이다(민 15:38; 신 22:12).

특별히 속죄일인 욥 키푸르^{yom kippur}때, 유대인들은 tzitzit가 매달린 기도 수건을 하루 종일 사용하며 기도한다고 전해진다.

당신의 계명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술(tzitzit)옷으로 우리를 덮게 하신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예수님은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수건을 사용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하면, 머리에 싸매기도 하셨다(요 20:7). 이른 새벽에 홀로 기도하실 때도, 군중을 떠나 배를 타고 홀로 계실 때도 이 수건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러니 기도 수건은 때마다 예수**



님을 떠난 적 없이 사용된 것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물건을 알게 되어 나로서는 무척이나 기뻐다.

놀랍게도 이것, 바로 예수님의 눈물과 기도가 깃든 기도 수건의 술을 만진 순간에 여인이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겐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막 5:30) 이 여인은 기도 수건인 tallit 중에서도 끝자락에 달린 tzitzit을 만졌을 뿐인데, 즉시 고침을 받는다. 어찌면 이 여인만 알고 있는 비밀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증언하기도 한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나 비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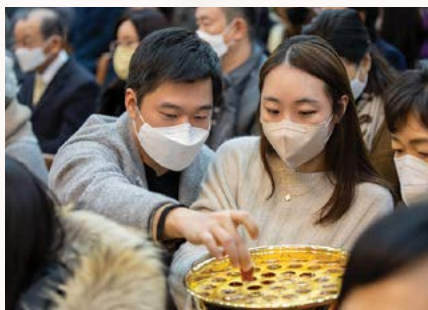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막 5:34 중)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모국어 아람어를 사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후에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형태이다. 그래서 여러 번 번역되는 과정에 언어가 가진 문화 양식과 배경이 그대로 살아나지 못해 본래의 의미보다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심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유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온가족 새벽기도회

소망의 성도들이 2023년 새해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렸다.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러 모인 성도들은 한 해를 열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문을 함께 낭독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신년 첫 메시지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올 한 해 성도들이 신앙과 삶 속에서 '퀀텀 점프'를 시도할 것을 권하며 새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찬을 베풀었다. 이날 성찬에 참여한 온 성도는 하늘 양식과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며,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했다. 이튿날 오전 5시 20분에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를 주제로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새해 첫 새벽기도회로 드려졌다. 대학, 청년부, 청년플러스 회원들과 부장단이 준비한 특송으로 기도회 열기를 더하기도 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와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한몸을 이뤄 가는 지체가 될 것을 강조했다. 올 한 해 마음속 간절한 기도 제물들을 놓고 기도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한 해의 시작을 주의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한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2023년을 전과 다른 각오와 신앙으로 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



1월 셋째 주

2023년 교회 신년 하례회



소망교회 신년 하례회가 1월 6일 저녁 6시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소망교회를 이끄는 당회원들과 남·여전도회, 찬양대, 교회학교 등 새해 소망교회를 섬길 리더십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진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은퇴 장로회 회장 강석홍 장로는 신년 하례회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올 한 해 청지기 직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특별 연주 순서로 성동은, 강지현, 방지영 자매가 피아노, 첼로, 플루트 삼중주를 준비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꽃대를 향하여’(빌 3:13-16)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활을 향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당회서기 박경희 장로가 인도한 2부 행사에서 한정운 목사의 기도와 만찬이 이어졌고, 한정 장로와 장로 7명이 ‘축복하노라’ 찬양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준비해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 냈다. 당회원들과 권사회, 남·여전도회, 사무처 등 임원들이 부서별로 인사한 뒤, 악수례로 희망찬 새해 다짐을 나눴다. 부르심의 꽃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한 소망의 리더십들. 예수님의 몸처럼, 내 몸처럼 우리 교회를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3 | 02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이경희

김영규

홍성민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위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1월 28일(통권 134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q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슬기로운
온라인 성경통독

온통 기쁨

SEASON 2

- 통독 기간 2.22(수) - 4.8(토) (사순절)
신청 기간 1.29(주일) - 2.12(주일)
통독 범위 바울서신 (로마서-빌레몬서)
통독 방법 매일 정해진 말씀 분량 녹음하기(음독)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큐알코드
참가비 5천원 ※ 참가비는 사회봉사부를 통해 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 02) 512-9191 (내선 351, 온라인 사역실)

